

노량진(오전) 6시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6월 26일 (제1155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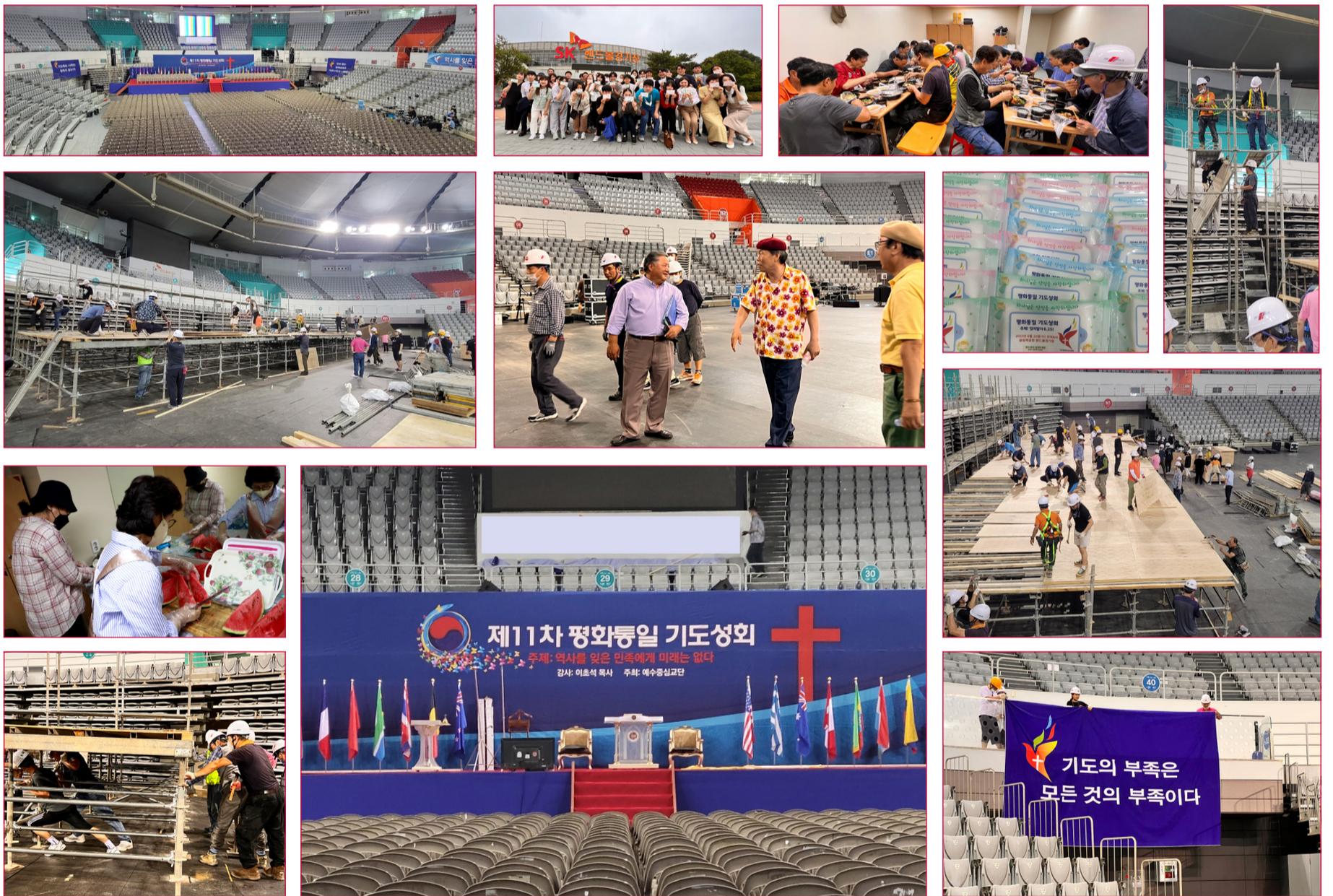
“6월 22일, 우리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주일예배에서 총회장 이 초석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하셨다. 집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열흘, 준비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았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가! 우리는 전천후(全天候) 예수중심교인이고,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이 초석 목사님께 교육을 받지 않았는가. 목사님의 선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일체가 되어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물

티슈를 만들어 거리로 나가 전도를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목숨보다 귀하다는 물질을 심었고, 어떤 이들은 작정기도에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준비작업 현장에 나가 직접 단을 쌓고, 음식을 만들어 봉사했다. 열흘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하나 된 우리에게서는 충분히 넉

넉한 시간이었다. 집회 전날 총회장 목사님은 핸드볼경기장을 직접 찾아 봉사자들에게 일일이 초콜릿을 전달하시며 격려하셨다. 이 수고와 기도는 부모나지 않는다. 반드시 머지않아 평화통일이 꿈을 꾸듯 다가오리라 확신한다.



봉우 컬럼

기도한 것을 믿어라

지난주, 나는 사업을 하는 어느 장로의 땅덩어리에 손을 들고 축복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쁜 나를 불러다 기도를 받아놓고 믿지 않는다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기도한 것은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해놓고 믿지 않는다. 어느 집사가 남편이 밖으로만 돌고 가정을

돌보지 않자 기도하기 시작했다. 매일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제발 남편 발걸음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했다. 먹지도 않는 남편의 밥을 해놓고 ‘이 밥의 주인이 돌아올지이다.’ 하며 매일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왔다. 너무 깜짝 놀란 집사가 한다는 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니, 기도는 실컷 해놓고 그제 할 말인가. 그러니 남편이 다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사업을 놓고 작정기도까지 하고 내게 상담은 사람이 나가면서 “근데 불황이라 될까요?” 한다. 기도했으면 믿어야 한다.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말씀하셨다. 믿어야 이뤄진다는 말씀이고, 의심하면 안 이뤄진다는 말씀이다. 우리는 무려 11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했다. 우리의 기도제목은 한 가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이다. 그런데 실컷 기도해놓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말해.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야.”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괜한 시간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한 꼴이 아닌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허상일 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 나라에 평화통일은 찾아온다. 토끼와 꿈이 각각 밥을 했다. 그런데 토끼는 ‘되고 있나?’ 하면서 계속 밥뚜껑을 연다. 그러니 밥이 설어서 못 먹었다. 꿈은 밥이 뜯들 때까지 뚜껑 위에 앉아 ‘아~ 뜨거.’ 하며 기다린다. 우리의 기도가 뜯이 들면, 의심치 않으면 분명히 이뤄진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7).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6:1~6)

우리도 꿈같은 통일을 기대하고 기도하자!

“왜 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교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건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에스겔서 37장,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할 것을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에 비유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와 북한이 하나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평화통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성회를 시작했고, 평화통일이 올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11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을 들어 이 큰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했습니다. 또 비천한 저를 통해 이 대사를 행하게 하시니 만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감사함을 다 형용하겠습니까?

싸우면 공멸이요 대화하면 공생이다

저는 전쟁이 정말 싫습니다. 저의 많은 군대 동기들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순간에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던 동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쟁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모든 희망의 끝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다 망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제 나이 때가 된 분들이야 살만큼 살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쳐갈 터전이 바로 국가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는 것이고, 우리 교단이 먼저 봉황불을 드는 것입니다. 흑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냉랭한데, 북한은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으로 위협하는데 평화통일이 오겠냐고요?’ 오다마다요. 왜냐, 우리가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하였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꿈같은 평화통일이 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고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 126:1~3).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꿈꾸는 것 같은 일, 곧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통일 되는 날에 꿈꾸는 것 같아서 “



총회장 이초석 목사

야, 내 얼굴 좀 꼬집어 봐. 나 좀 때려 봐.” 하겠지요. 그런데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은 이 일의 주역이 기도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신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세계를 150바퀴 돌아보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는 물론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싸운 선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했고, 초대국회를 개원할 때 이 영혼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라고 시인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움 저 설움이 있다지만 국가 없는 설움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요?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있는 개만도 못합니다. 시리아 난민을 보세요. 작금의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망가지고, 어린것들까

지 죽어나가고, 반길 곳이 없는데 고국을 떠나는 피란민이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종남 장로님은 6.25 참전용사입니다. 북한병이 쏜 실탄이 다리에 박혀 지금도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분은 “목사님, 전쟁만은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라며 이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그것은 남북전쟁이 아니라 이 땅은 열강의 신무기 시험장, 경연장이 될 것이고, 재래식 무기 처치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도권 싸움에 우리는 고래 싸움

에 새우 등만 터지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전심으로 싸워줄까요? 천만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는 적과의 동침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국방력을 키워야죠. 내 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 손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쟁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동역이 중요합니다. 모세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싸움이었던 거죠. 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은 평화통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정세나 북한의 자멸에 의한 외형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 다른 교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불어 인간적인 노력도 이뤄져야 합니다. 늘 말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감동을 시켜야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떠는 것은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새벽이 가까울 때가 제일 춥고, 물이 끓기 전이 제일 시끄러운 법,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을 하는 것은 많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대화의 물꼬가 터지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얼음같이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서로 싸우면 공멸만 있을 뿐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생의 길, 상생의 대로를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은 모든 희망의 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믿음의 애국 동지 여러분!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요, 그런 자가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셔서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사62:2~3). 주변국가에서, 세계열강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고, 대동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사론의 꽃이 만발하게 합시다. 저는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갑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책을 펴다 ::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적 세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성취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세히 알고 계시다. 왜 그러한 일들이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야만 하는지 하나님은 밝히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적 계획 표 속에 이미 짜여 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 중 어느 부분에 머물러 있는지 명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간격이 없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언제나 사람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려 하신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각각 제 모양을 주고 각자의 삶을 살게 했지만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하셨던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전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을 향한 영적 계획의

결말을 보고 출발, 과정, 이유 등을 추출한다. 결국 장애물은 없고 모든 게 스틸 뿐이요, 100% 가능성만 존재한다. 실수도 아름다운 과정으로 만드시며, 감당치 못할 일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진의 날개를 달고 거침없이 비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

사사기 7장에는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만 순종하는 지도자 기드온과 군사 삼만 이천명중 깨어 근신하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큰 전쟁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로 이끈 영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교단도 평화통일의 역사에 기드온의 삼백용사로 택할 받아 쓰임 받는 위대한 영적 작품을 주님께 돌리려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시며,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역사하심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 삶의 목적도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전파하기 위함 이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뵈옵기를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46:10).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나는 평상시 청바지에 티셔츠를 즐겨 입는다. 하루는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외출했다가 부동산사무소에 들르니 사무소 직원들이 나를 한 번 힐끔 쳐다보고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화투만 치고 있다. 기분이 몹시 나빴다. 내가 좀 후줄근한 차림이긴 했지만 분명 이것은 손님에 대한 예우는 아니잖은가. 그때 나는 제법 엄청난 부지를 물색 중이었다. 나는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 문을 열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내 차를 불렀다. 나는 그때 캐딜락을 타고 다녔다. 내 차가 그들 눈에 띈 모양이다. 그들은 황급히 따라 나와 나를 잡으며 “아니,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야 어찌 사업에 성공하겠소?” 하며 휘 돌아서 나왔다. 두고두고 기분 나쁜

일이었다. 그들이 나를 반색하며 일을 추진했다면 제법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을 텐데 기회를 놓친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외모로 판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마음 밖에 무엇이 심겨 있다가 더 중요하고, 머리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컴퓨터의 외장보다 내장의 프로그램이 더 좋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작태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이초석 목사 저서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중에서



:: 세상을 보는 창 ::

:: 낮은 울타리 ::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

중국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에 보면, '이 장군 열전' 편이 있다. 이 장군은 이광 장군을 말하는데,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시키는 신궁으로서 흉노족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이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하는데, 바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온 힘을 다하여 호랑이에게 활을 쏘았다. 호랑이는 화살 한 방에 쓰러졌다. 그런데 가서 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불그스름한 바위였다. 활을 얼마나 세계 당겼던지, 화살촉이 바위에 꽂혀 있었다. 자기도 놀라 다시 한번 바위를 향해 화살을 쏘아 보았다. 그러나 바위에 화살이 꽂힐 리가 없다. 그냥 튕겨 버렸다.

그때 이광은 간절함이 있으면 화살로도 바위를 뚫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에서 '사석위호(射石爲虎)', '간절하면 못할 게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나왔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 나이다”(시42:1). 위의 시를 저술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

슴의 갈급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슴은 물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시냇물 주위에 거하며, 자기가 아는 시냇물에서 좀처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잘 모르는 지역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번식기가 되면 수사슴들이 암사슴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때 수사슴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다가 사슴의 몸에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컷을 찾아 나섰으나 나중에는 물을 찾아 헤매게 되고, 물을 찾아 헤매던 수사슴들은 심한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하게 되어 나중에는 헛것을 보기도 한다. 결국 수사슴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간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에게 있어서 한 모금의 물은 곧 생명이었다.

위의 시를 저술한 시인은 사력을 다해 물을 찾아 죽었을 사슴들을 떠올리면서, 영적으로 갈급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갈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정금 전도사

질문하는 신앙

얼마 전 직장동료의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소 밀접하게 업무를 함께 하던 동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선물을 고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백화점을 둘러보니 무엇을 사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 결국 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동료와 나눴던 대화에서 힌트를 얻기 위해 메신저에 들어갔습니다. 나름 일상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의 메신저에는 회사 이야기, 그리고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에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답변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어떤 선물을 할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 때 기도문처럼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메모장에 적습니다. 최근에 적은 글들을 보니 하나님께 하는 말도 그 동료에게 했던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요즘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꼭 이거 해달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저의 소원만 가득

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져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데 저는 '아,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다르게 하길 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방법과 방향이 보인 것입니다.

저는 총회장 목사님을 보면서 생각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분이 바로 총회장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성전을 어디로 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단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러한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알아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물어보는 '질문하는 신앙'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답변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정

:: 일본에서 온 편지 ::

때를 잘 분별하고 준비하자

저는 새벽기도가 끝나면 건강을 위해 강둑으로 워킹을 하러 갑니다. 제가 워킹을 하는 다마강(多摩川)은 이름 모를 철새들도 많아서 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줍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조깅과 워킹으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버드워칭도 겸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환경입니다. 저는 매일 감사하며 주님과 대화 속에 워킹을 합니다.

최근 날이 따뜻해지자 많은 철새들이 다시 강으로 날아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남쪽으로 떠났다가 봄이 되고 따뜻해지니 다시 와서 새끼를 낳고, 또 기르고, 또 떠났다가 봄이 되면 돌아와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크고 작은 철새들은 때를 압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지금 사는 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히 떠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심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를 보며 가까이 온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노아의 때처럼 많은 이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안타까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비가 얼마나 계속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바이러스 문제와 전쟁과 지진 등의 재난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어 준비된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눅 21:10~19).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빠뜨리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

리고 어디에 두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잊어버리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리는 현상은 당연한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서글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믿음만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총기와 기억력은 감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 깊은 거목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로새서 2:6~7).

1971년도 성탄절에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연각 호텔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191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당했다. 역대 화재 사고로는 아직도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로 기록되고 있으며, 미국의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세계 최대의 건물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대연각 호텔은 22층이었는데 당시 서울시 소방서에는 제일 높은 고가사다리차가 32미터밖에 안 되어서 7층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놀란 투숙객들이 침대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내렸지만 공기의 저항으로 매트리스는 날아가고 추락사한 사람들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광경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불에 타서도 죽고, 떨어져서도 죽는데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렸을까? 그만큼 불이 주는 공포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대연각 호텔에는 뛰어내릴 창문이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에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없으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가서는 아니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의 판결을 면하고 영생 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기쁨의 찬가 ::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교회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신앙생활 5년에 실로암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명되었으니 더욱 쉽지 않았다. 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 교회에 기둥이 되라고 안수한 것이다. 성도가 50명 정도였는데 대표 기도, 헌금 위원, 주일학교 부장, 찬양 봉사 등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죽을병에서 살려주셨으니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성도 50명이 하는 헌금보다 나 혼자 하는 헌금이 많다고 목사님이 간증하셨고 1,000명 중에 10,000중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믿음이라고 간증하셨다.

그러는데 왜 신앙에 갈등이 왔는가? 일하다

시간이 나면 교회를 자주 찾았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TV를 보고 계셨다. 매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목사님, 조는 모습이라도 좋으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시의 내 생각은 교회가 부흥되어야 내가 잘되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였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전히 TV를 애청하셨다. 신앙의 갈등은 갑작한 심령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1989년도 학생체육관 이초석 목사님 집회에 참석할 때였다. ‘하나님!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오늘 기도가 최고로 잘되게 하옵소서.’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잘되는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느낌이였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초등학생들 가운데서 1등 하지 말고 꼴찌를 하더라도 대학생들과 같이 놀아야 배울 것이 있다.’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꽂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교회 도봉 기도처에서 찬양 봉사와 조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부자도 아닌데 부자 집사가 왔다고 성도들은 좋아했다. 주일날과 철야 예배는 의정부 성도들을 올림픽공원으로 인도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았고, 이초석 목사님의 열정과 교회 부흥과 성령의 역사 하심에 모든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성호 목사

Sungyeoha@hanmail.net

:: 생활 속의 잠언::

35년 만의 기도 응답

오랜 바램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 동안의 기도는 남편이 부디 제발 술에서 놓임을 받는 것이였습니다. 금식기도와 작정기도는 해아릴 수 없을 만큼 길고 길었고, 때로는 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통했으니, 이토록 간구했으니 끝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아니면 실망하며 인간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던 어느 순간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남편을 바라보던 시선에 사랑을 담았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ㅇㅇ엄마, 회개했어?’라는 남편의 물음에 ‘놀고 있네~. 회개는 무슨, 당신이나 회개하지시지.’ 그러던 입술에서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오로지 ‘내’ 뜻대로 기도하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진심으로

반성되었습니다. ‘내려놓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삶의 숙제를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심을 몰랐습니다. 나의 의지로 기도했으니 ‘주님, 왜 제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했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기도의 모습은 당신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바라보며 가족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했다면 분명히 믿음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없이 오직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랐던 기고만장의 자세를 내려놓았습니다.

세 치 혀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자녀도 남편도 그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십

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몸에 입고 그들을 향한 독선의 발언을 내려놓고 내려놓음과 비움을 주님 닮은 겸손의 삶으로 실천할 때 그래도 한번 나를 흘깃 바라보는 남편과 자녀의 시선을 느낍니다. 가족의 부드러워진 모습은 주님 앞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투영되었음을 알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버림은 삶의 미학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업도, 건강도, 가족의 행복도 모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삶에서 시작됨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믿음대로 실상이 되어 전개되어가도록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오자유 집사

Good News

1971년도 성탄절에 서울 충무로에 있는 대연각 호텔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191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당했다. 역대 화재 사고로는 아직도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로 기록되고 있으며, 미국의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세계 최대의 건물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대연각 호텔은 22층이었는데 당시 서울시 소방서에는 제일 높은 고가사다리차가 32미터밖에 안 되어서 7층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놀란 투숙객들이 침대 매트리스를 안고 뛰어내렸지만 공기의 저항으로 매트리스는 날아가고 추락사한 사람들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광경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불에 타서도 죽고, 떨어져서도 죽는데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렸을까? 그만큼 불이 주는 공포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대연각 호텔에는 뛰어내릴 창문이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에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없으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가서는 아니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의 판결을 면하고 영생 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